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22일 웨이보 공개)

임신하지 않았다 (왕호응 씀)

이것은 제자가 나에게 물었던 사례(事例)이다. 어떤 여자가 임신 여부를 점쳤다.

계묘년(癸卯年) 경신월(庚申月) 을축일(乙丑日) 임오시(壬午時) (순공(旬空): 술해(戌亥))에,
화택규(火澤睽)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庚申月 乙丑日 壬午時

八卦

火澤睽(艮土宮) 之 火澤睽(艮土宮)

父己巳 | 玄 父己巳 | 伏 官丙寅
帳花劫地 帳花劫地 馬花劫

兄己未 || 白 兄己未 || 伏 財丙子
閏天馬月 閏天馬月 將乙害

世 孫己酉 | 蛇 孫己酉 | 世 伏 兄丙戌 空
花將 花將 閏馬月花鞍

兄丁丑 || 勾 兄丁丑 || 伏 孫丙申
閏花鞍喜蓋 閏花鞍喜蓋 地乙亡

官丁卯 | 朱 官丁卯 | 伏 父丙午
害鬼馬災 害鬼馬災 帳馬災花

應 父丁巳 | 青 父丁巳 | 應 伏 兄丙辰
帳花劫地 帳花劫地 閏蓋天

卦身: 官卯

世身: 四爻

空亡: 戌亥

자손(子孫)을 용신(用神)으로 삼는다. 자손 유금(酉金)이 지세(持世)하고, 월(月)이 방부(幫扶)하며, 일(日)이 생(生)하니 왕상(旺相)하지만, 원신(元神)이 양현(兩現)하고 미토(未土)가 암동(暗動)하여 다시 생하니, 이것은 과왕(過旺)한 것이 되어 임신하지 않았다. 뒤에 피드백했는데, 과연 임신하지 않았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22일 웨이보 공개)

没有怀孕 (王虎应写)

这是徒弟问过的一个案例。某女占怀孕否？于癸卯年庚申月乙丑日壬午时
 (旬空：戌亥)，得火泽睽，

玄武		父母巳火'
白虎	妻财子水	兄弟未土"
螣蛇		子孙酉金'世
勾陈		兄弟丑土"
朱雀		官鬼卯木'
青龙		父母巳火'应

以子孙为用神。子孙酉金持世，月帮扶，日生为旺相，但元神两现，未土暗动再生，此为过旺，没有怀孕。
 后反馈，果然没有怀孕。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2일 웨이보 공개)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제12장 제자를 받아 가르치고 학문을 강론하니, 봄바람과 알맞은 비처럼 대도(大道)를 전하다

북송(北宋) 중엽, 과거(科擧)가 성행하여 선비들의 학풍이 날로 이익을 쫓아갔다. 천하의 학자들이 책을 읽고 학문을 연구하는 목적은 대개 공명과 벼슬길, 가문의 영화 때문이었으며, 평생을 과거 시험용 글과 경전의 교조적인 뜻에만 파묻혀 살았으니 오직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서기 위해서였다. 정통 유학은 점차 자구(字句)나 해석하는 학문으로 흘러가고 예법의 조문에만 구속되어,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헤쳐 앞에 이르고 천인의 이치를 관통하는 생생한 본뜻을 잃어버렸다. 게다가 세상의 역학(易學)은 더욱 혼란스러워져 참된 전수(傳授)는 인멸되고 거짓된 학설이 범람하니, 세상 사람들이 역학을 배울 때 대개 점쳐서 길흉을 판단하고 길 을 쫓고 흉을 피하는 데만 집착했다. 술수(術數)를 중히 여기고 도(道)를 가볍게 여기며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았기에, 상고시대에 하늘을 보고 도를 깨우치며 세상의 운수를 추연(推演)하던 정종(正宗)의 큰 뜻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소옹(邵雍)은 낙양(洛陽) 문맥의 중심에 살면서, 당세의 학문 연구가 편벽되고 대도(大道)가 가려진 현실을 목도하고 마음속으로 늘 안타깝게 여겨, 마침내 문을 열고 제자를 받아 도통(道統)을 이을 마음을 내었다.

그때 소옹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니 명사들이 다투어 사귀려 하였고, 사방에서 학문을 구하고 도를 묻는 선비들이 끊이지 않았다. 산야에서 은거하며 진심으로 도를 향하는 사람도 있었고, 학문을 연구하다 막혀 부딪힌 선비들도 있었으며, 또한 나이가 젊고 뜻이 있어 참된 지식을 갈구하는 후생들도 있어서 분분히 낙양의 안락와(安樂窩)로 달려와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기를 간청했다. 소옹은 대도가 시들어 사라지고 참된 전수가 이어지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으며, 천년 동안 이어진 선천 역학(先天易學)이 세속의 폐단 속에 사라지는 일을 원치 않았다. 더욱이 후세의 학자들이 공리의 미로에 갇혀 평생 학문의 본원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여, 마침내 문을 열고 학문을 강론하며 도를 전하고 의혹을 풀어주기로 결심하여 한 사람의 힘으로 학풍을 바로잡고 문맥을 이어가고자 했다.

소옹이 학문을 강론하는 방식은 당세의 사숙(私塾)에 있는 세속의 유학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으니, 세속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공리적인 굴레를 던져버렸다. 그는 수업할 때 말과 글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을 중히 여기지 않았고, 과거 시험용 글을 연습시키지 않았으며, 벼슬길의 권모술수를 가르치지 않았고, 이익을 쫓아 처세하는 기교를 전하지 않았다. 오직 천지의 수리(數理), 선천의 이치(易理), 몸을 닦는 본심(本心), 처세하는 바른 도리를 핵심으로 삼았다. 그 가르치는 법은 파벌의 벽을 깨뜨려 높고 낮음과 존비의 제한이 없었고, 사사로이 숨기거나 비법으로만 전하지 않아서, 출신이 귀하고 천함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 근기가 깊고 얕음을 불문하고 다만 성심으로 학문을 향하고 품행이 바른 자라면 모두 문하에 들어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예전에 역학(易學) 가문에서 비밀로 하여 드러내지 않던 하락(河洛)의 현묘한 틀과 선천심법(先天心法)이 이로부터 세상에 공개되어 후학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는 학문을 연구하고 사람을 기르는 과정에서 먼저 심성(心性)과 덕행(德行)을 중히 여겼고, 그 다음으로 학식과 의리(義理)를 보았으니, 언제나 “먼저 마음을 닦은 후에 학문을 연구하고, 먼저 덕을 세운 후에 도를 깨우친다”는 준칙을 굳게 지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2일 웨이보 공개)

켰다. 제자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학문은 덕이 없으면 서지 못하고 도는 마음이 없으면 통하지 못하니, 만약 순수한 본심과 돈독한 덕행이 없다면 비록 수리와 괘상(卦象)에 익숙할지라도 또한 술수의 작은 재주나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전락할 뿐이라 성현의 대도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므로 수업의 초반에는 반드시 먼저 제자들에게 마음을 고요히 하여 뜻을 지키고 담박하게 생활함으로써 욕심을 물리치며 덕을 두텁게 하여 몸을 닦게 했다. 그리하여 공리적이고 들뜬 마음을 제거한 뒤에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하락의 본원, 선천의 과제, 음양의 진퇴, 사시의 운화, 고금의 치란(治亂)에 관한 핵심 의리를 전수했다.

당세 명스승들의 엄격하고 각박한 수업 방식과 비교하면, 소옹의 강학(講學)은 봄바람이 불고 알맞은 비가 내리듯 온화하고 겸손했다. 그는 벼슬을 입은 처지에서 중생을 마음에 품었기에 학문을 믿고 남을 오만하게 대하지 않았고 스승의 위엄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제자들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포용하고 평이하며 친근했다. 수업은 서재의 고정된 틀에 구속되지 않아서, 안락와의 누추한 방에서 도를 논하기도 하고, 낙수(洛水)의 물가에서 사물을 관찰하며 학문을 강론하기도 했으며, 산야의 숲 사이에서 의리를 체득하기도 했다. 소질에 따라 가르치고 받아들이도록 잘 이끌어 주었으니, 근기가 얇은 자에게는 근본을 굳건히 하고 몸을 닦아 차근차근 나아가게 했고, 타고난 자질이 총명한 자에게는 수리를 깊이 연구하여 안목을 넓히도록 이끌었으며, 심성이 조급한 자에게는 마음을 가라앉혀 도를 보존하고 본심을 침전시키도록 인도 하여, 제자마다 모두 장점을 취해 학업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소옹의 가르침 아래, 문하의 제자들은 세속에서 학문을 연구하던 누습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아무도 공명의 지름길을 쫓지 않았고, 아무도 허망한 술수에 탐닉하지 않았으며, 모두 잠심(潛心)하여 덕을 닦고 고요한 마음으로 도를 깨우치며 이치를 깊이 연구했다. 여러 사람은 파벌의 편견을 버리고 유학과 도학의 우열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학파의 고하를 다투지 않고, 오직 천인의 이치를 관통하여 대도를 전승하는 일을 자기 임무로 삼았다. 소옹은 평생토록 탐구하여 깨달은 선천의 정종(正宗), 사물을 관찰하는 심법, 인간 세상의 지혜를 남김없이 전수해 주었으니, 글자마다 진심이었고 구절마다 참된 전수였기에, 후세의 역학(易學)이 억지로 끌어다 붙여 편벽되고 술수를 중히 여기며 도를 가볍게 여기던 천년의 병폐를 철저히 바로잡았다.

한동안 안락와의 문풍(文風)이 크게 성하고 살구와 복숭아 나무가 점차 무성해졌다. 문하의 제자는 비록 인원수는 많지 않았으나 개개인의 품행이 바르고 학식이 견고했으며, 선천역학의 정종을 깊이 알고 천지의 조화, 인간 세상이 가득 차고 이지러지는 이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왕복하는 대도의 법칙을 통달하였으니, 모두 당세에 보기 드문 맑은 흐름의 현명한 인재들이었다. 바로 이 무리의 문인과 제자들이 끊어진 지 오래된 선천역학의 문맥을 이어, 상고시대의 정종 역학이 소수의 비밀스러운 전수라는 굴레를 벗어나 대대로 이어져 햇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으니, 후세에 강절(康節)의 학문이 천고에 흘러가 만세에 혜택을 주도록 전승의 근간을 단단히 다져 놓았다.

도를 전하고 사람을 기르는 여가에 소옹은 중년에 접어들었고, 학문적 소양은 원융해지고 심성은 순수해져, 평생 배운 바를 모두 융회관통(融會貫通)하니 이미 만고의 시간을 관통하고 세상의 운수를 통찰하는 대성의 안목을 갖추었다. 반평생 동안 산천을 두루 거치고 백가의 책을 널리 보았으며 스승을 모셔 도를 깨우치고 저자거리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명사들과 도를 논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기른 경험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2일 웨이보 공개)

은, 그로 하여금 천도(天道), 수리(數理), 인사(人事), 고금(古今)의 벽을 완전히 허물게 만들었다. 더 이상 단 하나의 사물을 관찰하여 몸을 닦고 국부적으로 도를 깨우치는 선에 국한되지 않고, 시선을 만고의 시공간과 천하의 세운(世運)으로 돌려 천지의 운화와 인간 세상 치란의 궁극적인 법칙을 정리하기로 뜻을 세웠다.

당세의 전적(典籍)들을 통틀어 살펴보면, 사서는 오직 인사의 흥쇠와 왕조의 교체만 기록했을 뿐 흥쇠 배후에 있는 천도의 수리는 말하지 않았고, 역학은 오직 개체의 길흉과 국부적인 음양만 논했을 뿐 만고의 세운과 전반적인 치란은 통달하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 오직 한 조정의 흥망과 한 시대의 득실만 알 뿐, 흥 망에는 정해진 운수가 있고 교체에는 법칙이 있으며 만고의 변천이 모두 천도에 따르는 원리가 있고 수리으로써 추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옹은 세상의 학문이 파편화되고 양극화되어 천도를 논하는 자는 인사에서 벗어나고 인사를 논하는 자는 천도에 통달하지 못하는 현실을 깊이 느꼈고, 이에 평생 배운 바를 통합하여 천인을 융합하고 고금을 관통하며 치란을 연구하고 세운을 정하여, 천지를 포괄하고 만상을 포함하는 광세(曠世)의 체계를 편찬하기로 결심했다.

이로부터 소옹은 문을 닫고 깊이 침전하여 잠심으로 추연하며, 《황극경세(皇極經世)》 핵심 체계의 구축 기틀을 열었다. 그는 선천의 하락수리를 체(體)로 삼고, 천지 사시의 운화를 법칙으로 삼았으며, 역대 왕조의 흥쇠를 증거로 삼고, 상고시대부터 북송에 이르는 만고의 시공간을 차원으로 삼아, 천문역법, 지리풍물, 음양오행, 역학 수리(易學數理), 사서의 치란, 인심과 세상사를 모두 하나로 융합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일이나 한 조정, 한 시대의 득실에 국한되지 않고 만고 천지의 거대한 시각에서 세상의 변천과 만물의 생멸을 굽어보았다.

추연의 길은 메마르고 고달파서 정신을 소모하고 힘을 다했으며 밤낮으로 쉬지 않았다. 낮에는 사물을 관찰하고 이치를 살펴 고금을 인증(印證)하였으니 사시의 유전, 산천의 변천, 저자거리의 차고 기움, 인사의 경질을 대조하여 수리의 법칙을 바로 잡았고, 깊은 밤에는 등잔 앞에 정좌하여 과거의 차례를 연산하고 세운을 정리하며 치란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윤회를 추연했다. 각각의 수리, 각각의 세운, 각각의 흥쇠를 모두 반복하여 추고하고 층층이 인증하되, 주관적인 단정에 집착하지 않고 허망한 주장에 부회하지 않았으며 오직 천도를 근본으로 삼고 수리를 근거로 삼았으며 사실을 증거로 삼았다.

날마다 반복되는 추연 속에서 소옹은 만고 치란의 밑바닥 논리를 통찰했다. 천지의 음양에는 소장이 있고 인간 세상의 기운에는 성쇠가 있으며, 천도의 운화에는 주기가 있고 왕조의 교체에는 정해진 수가 있었다. 작게는 사계절의 윤회와 해마다의 풍흉, 개인의 화복으로부터 크게는 천년의 세운, 왕조의 흥폐, 천하의 치란에 이르기까지 음양의 진퇴와 채우고 비우는 왕복의 수리 법칙 속에 있지 않은 대상이 없었다. 그는 단편적인 역사의 변천과 무질서한 인간 세상의 흥쇠를 엄격하고 질서 정연하며 고리처럼 맞물려 순환하고 왕복하는 천도의 체계로 정리하여, 만고의 창상이 모두 자취를 찾을 수 있고 이치가 깃들여 있으며 수리으로써 추산할 수 있게 했다.

소옹은 “황극(皇極)”으로써 마음을 세우고 “경세(經世)”로써 학문을 세웠으니, 천지의 준칙을 세우고 인간 세상의 법도를 정하며 만고의 정도를 전하고자 했다. 그는 세속 신학의 허망함과 천명 미신의 편벽된 태도를 던져버리고 흥쇠를 귀신의 천의로 돌리지 않았으며, 오직 천지의 수리, 기운의 유전, 인심의 변천으로 돌렸다. 천도가 기운을 결정하고 기운이 인심에 영향을 주며 인심이 치란을 주도하니, 세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2일 웨이보 공개)

가지가 고리처럼 맞물려 서로 인과가 되어 만고에 변하지 않는 세운의 윤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인식은 고금 학문의 인식 국한을 완전히 뛰어넘은 결과였으니, 세운의 학문이 허망한 현학으로부터 탈피하여 이치가 있고 수가 있으며 근거가 있는 천인의 대도로 변하게 만들었다.

수년 동안 잠심하여 추연하고 반복하여 교정한 끝에, 《황극경세》의 거대한 프레임이 초보적으로 이루어졌다. 소응은 한 사람의 힘으로 하늘과 사람, 옛날과 지금, 수와 리, 어지러움과 다스려짐을 관통하여 북송 이래 가장 거대하고 가장 계통적이며 가장 명쾌하게 꿰뚫은 천인(天人)의 학술 체계를 세웠다. 이로부터 선천역학은 단지 몸을 닦고 도를 깨우치며 사물을 관찰하여 이치를 살피는 소수의 학문에 머물지 않고 만 세를 추연하고 국운을 통찰하며 고금을 관통하는 경세의 철학이 되었다. 이는 그가 훗날 언어를 세우고 학설을 세워 천고에 모범이 되고 후세를 빛내 무너뜨릴 수 없는 종사의 근간을 정립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第十二章 授徒讲学，春风化雨传大道

北宋中叶，科举盛行，士林学风日渐趋利。天下学子读书治学，多为功名仕途、门第荣华，毕生理首八股辞章、经义教条，只为博取一第、立身朝堂。正统儒学渐渐流于章句之学，拘于礼法条文，失却格物致知、贯通天人的鲜活本义；而世间易学更是乱象丛生，真传湮灭、伪说泛滥，世人学易多执于卜筮吉凶、趋吉避凶，重术轻道、舍本逐末，上古先天观天悟道、推演世运的正宗大义，几近断绝。邵雍身处洛城文脉中心，目睹当世治学偏颇、大道蒙尘，心中常怀惋惜，遂生开门授徒、接续道统之心。

彼时邵雍声名日隆，名士争相结交，四方求学问道之士络绎不绝。有山野潜心向道之人，有士林困惑治学之辈，亦有年少有志、渴求真知的后生，纷纷奔赴洛阳安乐窝，恳请拜师求学。邵雍感念大道凋零、真传难继，不愿千年先天易学湮灭于世俗流弊，更不忍后世学子困于功利迷途、终生不得治学本源，终于决意开门讲学、传道解惑，以一己之力扶正学风、延续文脉。

邵雍讲学，全然不同于当世私塾俗儒，摒弃世俗治学的功利桎梏。他授课不重辞藻雕琢、不练八股时文、不教仕途权谋、不传趋利处世的机巧，独以天地数理、先天易理、修身本心、处世正道为核心。其教法打破门户壁垒、无高下尊卑之限，不藏私、不秘传，无论出身贵贱、年岁长幼、根基深浅，但凡诚心向学、品行端正者，皆可入门受教。昔日易学世家秘而不宣的河洛玄机、先天心法，自此公开于世，惠及后学。

他治学育人，首重心性德行，次及学识义理，始终坚守“先修心、后治学，先立德、后悟道”的准则。常告诸弟子，学无德不立，道无心不通，若无纯粹本心、敦厚德行，纵熟稔数理卦象，亦只会沦为术数小技、牟利工具，难入圣贤大道。故而授课之初，必先教弟子静心守志、淡泊祛欲、厚德修身，祛除功利浮躁之心，再循序渐进传授河洛本源、先天卦序、阴阳进退、四时运化、古今治乱的核心义理。

相较于当世名师严苛刻板的授课方式，邵雍讲学如春风化雨、温润谦和。他身居布衣、心怀众生，从不恃学傲人、摆师道威严，与弟子相处谦恭包容、平易亲和。授课不拘泥书斋定式，或于安乐窝陋室论道，或于洛水之滨观物讲学，或于山野林间体悟义理。因材施教、循循善诱，根基浅薄者，教其固本修身、循序渐进；天资聪颖者，引其深究数理、开拓格局；心性浮躁者，导其静心存道、沉淀本心，让每一位弟子皆能各取所长、学有所成。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2일 웨이보 공개)

。在邵雍的教化之下，门下弟子尽脱世俗治学陋习。无人追逐功名捷径，无人沉迷虚妄术数，皆潜心修德、静心悟道、深耕易理。众人摒弃门户偏见，不执儒道优劣、不争学派高低，唯以贯通天人、传承大道为己任。邵雍将毕生参悟的先天正宗、观物心法、人世智慧倾囊相授，字字真心、句句真传，彻底纠正了后世易学附会偏颇、重术轻道的千年弊病。

一时之间，安乐窝文风鼎盛、桃李渐繁。门下弟子虽人数不众，却个个品行端正、学识扎实，深谙先天易学正宗，通晓天地造化、人世盈亏、治乱往复的大道规律，皆为当世难得的清流贤才。正是这一批门人弟子，接续了断绝已久的先天易学文脉，让上古正宗易学跳出小众秘传的桎梏，代代延续、薪火不绝，为后世康节之学流传千古、泽被万世，筑牢了传承根基。

传道育人之余，邵雍步入中年，学养圆融、心性纯粹，毕生所学尽数融会贯通，已然具备贯通万古、勘破世运的大成格局。半生遍历山河、博览百家、拜师悟道、市井观心、名士论道、教书育人，让他彻底打通天道、数理、人事、古今的壁垒，不再局限于单一格物修身、局部悟道，转而将目光投向万古时空、天下世运，立志梳理天地运化与人间治乱的终极规律。

纵观当世典籍，史书只记人事兴衰、王朝更迭，却不言兴衰背后的天道数理；易学只论个体吉凶、局部阴阳，却不通万古世运、全局治乱。世人观史，只知一朝兴亡、一世得失，却不知兴亡有定数、更迭有规律，万古变迁皆有天道可循、数理可推。邵雍深感世间学问碎片化、两极化，论天道者脱离人事，论人事者不通天道，遂决意整合毕生所学，融天人、贯古今、究治乱、定世运，编撰一套囊括天地、包罗万象的旷世体系。

自此，邵雍闭门沉潜、潜心推演，开启《皇极经世》核心体系的构建之路。他以先天河洛数理为体，以天地四时运化为则，以历代王朝兴衰为证，以上古至北宋万古时空为维度，将天文历法、地理风物、阴阳五行、易学数理、史书治乱、人心世情尽数融为一体。不再局限于一人一事、一朝一代的得失，而是站在万古天地的宏大视角，俯瞰世间变迁、万物生灭。

推演之路枯燥艰辛，耗神耗力、日夜不辍。白日他观物察理、印证古今，对照四时流转、山河变迁、市井盈亏、人事更迭，校准数理规律；深夜静坐灯前，演算卦序、梳理世运、辨析治乱、推演轮回。每一个数理、每一段世运、每一次兴衰，皆反复推敲、层层印证，不执臆断、不附虚妄，唯以天道为本、数理为据、史实为证。在日复一日的推演中，邵雍勘破万古治乱的底层逻辑。天地阴阳有消长，人世气运有盛衰，天道运化有周期，王朝更迭有定数。小到四季轮回、年岁丰歉、个人祸福，大到千年世运、王朝兴废、天下治乱，无一不在阴阳进退、盈亏往复的数理规律之中。他将零散的历史变迁、无序的人间兴衰，梳理成一套严谨有序、环环相扣、循环往复的天道体系，让万古沧桑皆有迹可循、有理可依、有数可推。

邵雍以“皇极”立心，以“经世”立学，旨在立天地之准则、定人世之轨度、传万古之正道。他摒弃世俗神学虚妄、天命迷信的偏颇，不将兴衰归为鬼神天意，而是归于天地数理、气运流转、人心变迁。天道决定气运，气运影响人心，人心主导治乱，三者环环相扣、互为因果，构成万古不变的世运轮回。这一认知，彻底跳出了古今治学的认知局限，让世运之学从虚妄玄学，变为有理、有数、有据的天人大道。

历经数年潜心推演、反复校正，《皇极经世》的宏大框架初步成型。邵雍以一己之力，贯通天与人、古与今、数与理、乱与治，搭建起北宋以来最宏大、最系统、最通透的天人学术体系。自此，先天易学不再只是修身悟道、观物察理的小众学问，成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2일 웨이보 공개)

为可以推演万世、洞察国运、贯通古今的经世绝学，为他日后立言立说、垂范千古、光照后世，奠定了无可撼动的宗师根基。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원호문전(元好問傳)

원호문(元好問)은 자가 유지(裕之)이고 호는 유산(遺山)이며, 병주(並州) 태원(太原) 수용(秀容) 사람으로 금(金)나라와 원(元)나라 교체기의 문종(文宗)이자 대유학자(大儒學者)이며 백세(百世)의 시종(詩宗)이다. 원씨 가문은 대대로 성품이 고아하고 선비다웠으며, 세대에 걸쳐 책을 읽고 학문을 닦았다. 원호문은 어릴 때부터 기이한 재능을 타고나 천품이 탁월했으며, 일곱 세에 시를 지을 줄 알았고 약관(弱冠)의 나이에 이미 시와 문의 명성이 하동(河東)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어려서부터 경시자집(經史子集)을 널리 섭렵하고 제자백가(諸子百家)에 통달했으며, 시문의 깊은 오의를 깊이 연구했다. 또한 산천을 두루 유람하며 삼진(三晉)의 풍물을 마음껏 감상하니, 가슴에는 산천의 기상이 담겼고 붓끝에는 천고의 풍상이 서렸다. 젊은 시절에는 과거 공부에 잠심(潛心)하여 부지런히 배움을 쉬지 않았으니, 뜻은 학문을 닦아 세상을 구제하고 문치로써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데 있었다.

금나라 말기의 어지러운 세상이 도래하자 천하가 뒤집히고 사방에서 전쟁의 불길이 일어났으며, 중원이 흔들리고 금나라의 국운이 기울어갔다. 원호문은 난세를 만나 이리저리 떠돌며 전쟁의 고통을 두루 겪었고, 백성들이 유리걸식하고 산천이 부서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벼슬길은 험난했고 누차 곤경에 처했으니, 더는 태평성대 문인의 안락함을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난세라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유랑 생활 중에도 뜻을 꺾지 않았으며, 평생 문화를 보존하고 문맥(文脈)을 잇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금나라에서 원나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예악(禮樂)이 무너지고 책들이 흩어졌으며, 전조(前朝)의 문학과 역사가 많이 실전되었다. 이에 원호문은 사방을 두루 다니며 금나라의 사료를 수집하고, 지방의 원로들을 찾아가 옛이야기를 듣고 유문(遺文)을 모으며 옛일을 기록했다. 그는 마음과 힘을 다해 《중주집(中州集)》과 《임진잡편(壬辰雜編)》을 편찬함으로써 금나라 한 시대의 문학과 역사를 남겨 두었고, 북방의 백년 문맥을 보존해 냈다.

그의 시문은 금나라와 원나라 두 세대를 통틀어 으뜸이었으니, 풍격이 침울하고 쓸쓸하며 웅혼하고 중후했다. 난세에 처한 백성들의 고통과 산천의 흥망에 대한 탄식을 남김없이 그려냈으며, 걸만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적인 말은 없고 오직 나라와 가정을 걱정하는 슬프고 가련한 마음만이 독보적이었다. 논자들은 그를 일컬어 "금나라의 문학을 집대성하고 원나라 사람들의 선구자가 되었다"라고 평하며, 북방 문단의 백세 종사로 여겼다. 또한 그는 입신(立身)이 고결하고 마음속에 백성을 품었기에, 난세 속에서도 권세를 탐하지 않고 은거하며 학문을 닦고 향리를 교화하며 후학들을 일깨웠다. 태원에서 태어나 분수(汾水)와 진(晉) 땅의 문맥을 이어받아, 난세에 처해서도 선비의 문풍을 지켰고 유랑 속에서도 풍골(風骨)을 보존했으며, 붓과 먹으로써 절학(絕學)을 잇고 시문으로써 흥망을 기록했다. 실로 삼진 천년 문단에서 가장 높은 선현(先賢)이다.

元好問傳

元好問，字裕之，号遺山，并州太原秀容人，金元之际文宗大儒、百世詩宗也。元氏家世儒雅，世代讀書治學。好問幼稟奇才，天資卓絕，七歲能詩，年方弱冠，詩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22일 웨이보 공개)

文之名已震河东。其自幼博览经史子集，贯通百家，深究诗文奥义，遍历山河，饱览三晋风物，胸藏山河丘壑，笔含千古风霜。少时潜心科举，勤学不辍，志在治学济世，以斯文安天下。

金末乱世，天下倾覆，战火四起，中原板荡，金祚将倾。好问身逢乱世，颠沛流离，遍历兵戈疾苦，目睹苍生流离、山河破碎。仕途坎坷，屡遭困顿，不复盛世文人安逸。然其不以乱世自弃，不以流离堕志，毕生以保存斯文、接续文脉为己任。金元迭代，礼乐崩坏，典籍散佚，前朝文史多有失传。好问遍历四方，搜求金代史料，访故老、辑遗文、录旧事，呕心沥血，编撰《中州集》《壬辰杂编》，留存金源一代文史，保全北方百年文脉。

其诗文冠绝金元两代，沉郁苍凉、雄浑厚重，尽写乱世苍生疾苦、山河兴亡之叹，无浮华雕琢之辞，独有家国悲悯之心。论者谓其“集金代之大成，启元人之先声”，为北方文坛百世宗师。且其立身高洁，心怀苍生，乱世之中不慕权贵，隐居治学，教化乡里，启迪后学。生于太原，承汾晋文脉，处乱世而守斯文，居流离而存风骨，以笔墨续绝学，以诗文记兴亡，是为三晋千年文苑至高先贤。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22일 웨이보 공개)

《신의천진(神醫天真)》 5

량중자(良中子)는 곧 안도 쇼에키(安藤昌益)로, 일본 에도 중기의 지명도 있는 민간 의사와 사상가이다. 평생 의술과 본초(本草)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사방을 유람하며 독창적인 학술 이념을 형성했다. 《신의천진》은 그의 핵심 의학 저작으로, 책 전체가 천진원기(天真元氣)를 근본적인 입론으로 삼아 인체와 천지만물이 모두 일원원기(一元元氣)로 화생한다고 보았으며, 음양(陰陽)이 서로 소통하고 순환하며 상생한다는 전체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전통적인 완고한 음양오행(五行) 인식을 타파했다.

해당 서책은 특색 있는 진료 체계를 형성했는데, 얼굴 부위의 망진(望診)을 중시하여 얼굴 부위와 오관을 장부(臟腑)에 대응시켜 병소와 병세를 판단했다. 시치(施治) 이념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주장하여, 온몸의 원기를 조화롭게 하고 신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으며 독한 약으로 강하게 공격하는 것을 추종하지 않았다.

이 저작은 의학 이론과 자연 철학을 깊이 결합하여, 전통 의학 이론의 정수를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색을 융합했으니, 일본 근세 민간 의학 중에서 풍격이 선명하고 사상이 심오한 고전이며, 당시 동아시아 민간 의술과 사상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참고를 제공한다. 연재의 다섯 번째.

良中子即安藤昌益，是日本江戸中期知名民间医者与思想家，一生钻研医术、本草之学，同时游历四方，形成了独树一帜的学术理念。《神医天真》是其核心医学著作，全书以“天真元气”

为根本立论，认为人体与天地万物皆由一元元气化生，秉持阴阳互性、循环相生的整体观念，打破传统僵化的阴阳五行认知。

该书形成了特色诊疗体系，重视面部望诊，以面部部位、五官对应脏腑来判断病灶与病情。在施治理念上，主张顺应自然规律，以调和周身元气、恢复机体平衡为核心，不推崇猛药强攻。

这部作品将医学理论与自然哲学深度结合，既吸纳传统医理精华，又融入自身独到思考，是日本近世民间医学中风格鲜明、思想深刻的典籍，也为研究当时东亚民间医术与思想文化提供了珍贵参考。连载之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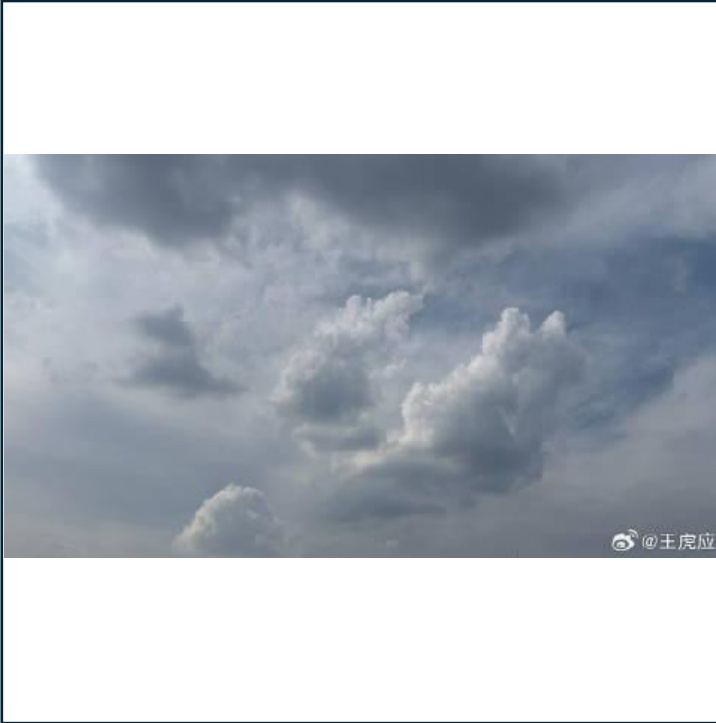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22일 웨이보 공개)



꿈결 같은 하늘 풍경
(夢幻的天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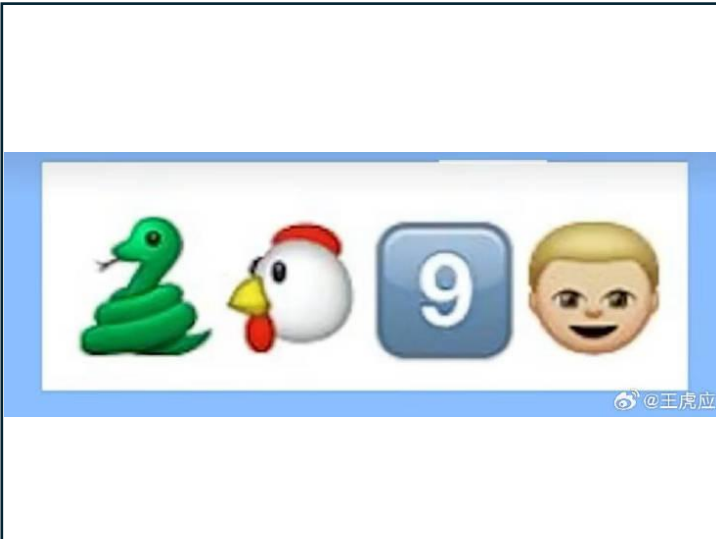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추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